

『청탐(靑鞞)』으로 본 「성의 자기결정」  
— ‘성적인 권리’의 역사적 의의에 부쳐 —

요네다 사요코\*

김 경 원 역\*\*

1. 머리말 - 북경여성회의와 ‘성적인 권리’를 둘러싸고
2. 근대일본의 ‘성’ 상황과 ‘성의 자기결정’
3. 전기 『청탐』과 ‘-되는 성’의 갈등
4. 후기 『청탐』과 ‘-하는 성’의 모색
5. 맺는말

편집자의 말

1910년대 일본의 지식 청년계의 화제를 불러모았던 일본 최초의 여성문에 동인지 『청탐』 동인들의 주장과 실천은 일본 유학을 경험한 식민지 조선의 청년 남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1910~1920년대의 우리 나라 신여성 연구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문학사 연구에서도 『청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청탐』을 중심으로한 일본 신여성 운동의 전개과정과 거기서 제기된 각종 논쟁들에 대해서는 일본 여성사에 관한 기존의 저술에서 간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번역 소개한 요네다 교수의 논문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논의의 대상도 『청탐』에 발표된 소설 작품이기에 한국근대 여성문학 연구에 많은 시사를 줄 거승로 기대한다. 요네다 사요코 교수는 일본의 여성사학자로 ‘청탐’사와 그 주도자인 히라츠카 라이초우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편집위원회>

\* 米田佐代子 : 야마나시(山梨) 현립(縣立) 여자단기대학 교수

\*\*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머리말 - 북경여성회의와 '성적인 권리'를 둘러싸고

작년 북경에서 제4회 세계여성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대표에 의해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었고, 각국은 이것에 따라 자국의 여성 행동 계획을 바로잡게 되었다. 하지만 그 「행동강령」을 채택함에 있어서 각국간의 합의를 얻기도 힘들었고, 격론으로 치달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 그 일례로 '성적인 권리(sexual rights)'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반대측은 주로 가톨릭이나 이슬람계 나라였는데, 이 용어에는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과 권리(reproductive health/rights)'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그것이 임신중절의 용인과 관련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행동강령」은 '성적인 권리' 대신 '여성의 인권(the human rights of women)'이라는 용어가 채택되는 경과를 거쳤다. 그러나 용어를 바꾸어 쓰고 '성'이라는 말도 몇 군데 삭제되었지만, 전체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견해인 듯하다. 그 부분은 "여성의 인권은 강제, 차별 및 폭력이 없는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을 비롯하여, 스스로의 선택을 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다른 단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성의 생식에 관한 권리가 무시됨으로써 교육 및 경제적, 정치적 힘을 부여하는(empowerment) 기회를 포함한, 공사(公私)의 생활에서 여성의 기회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sup>

이렇게 보면 북경회의에서 논의되어 내용면에서는 각국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이는 '성적인 권리=sexual rights'란 단지 임신중절의 용인 혹은 '낳는다, 낳지 않는다'는 선택의 자유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여성의 인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섹슈

---

1) 이상은 제4회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총리부(總理府) 가역(假譯)에 의한다.

얼리티에 관한 '자유와 책임 있는 결정'은 여성 권리의 가장 근간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소론의 표제를 '성의 자기결정'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권리로서의 성'의 인식을 역사적으로 파헤쳐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여자단기대(短大) 교수인 나의 체험이다. 여학생의 상당수는 자기자신을 권리주체로서 인식하지 않은 채 성장한다. 하긴 이 점은 남학생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의 경우 특히 절실한 바는 '성'에 대한 권리 인식의 미약함, 애매함이다. 나는 지금 근무하는 학교 이외에도 몇몇 여자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차나 버스에서 치한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맨처음 대답은 압도적으로 '도망간다' '도중에 내린다' '참는다(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등등이다. 왜 항의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부끄럽다' '무섭다(양값음을 당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자기가 방심한 것을 반성한다'는 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물어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입다물고 있었던 자신이 분하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없는 쪽이 좋지만) 밀쳐서라도 항의하고 싶다'는 감상을 쓴다. 별다른 암시를 걸어서가 아니라 '성'은 자기자신의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들은 곧 깨닫는 것이다.

그러한 자각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는 뜻에서, 근대일본의 여성들이 현대보다 훨씬 무권리, 무자각한 상태에서 어떠한 갈등을 통해 '나의 성은 나의 것'이라는 '성의 자기결정'의 인식을 획득해 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 2. 근대일본의 '성' 상황과 '성의 자기결정'

근대 이전의 일본에 여성의 '성의 자기결정'이라는 권리가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근대국가라는 '공적'인 틀 속에서 여성의 '성'을 위치짓는 일이다. 이미 많은 논자가 언급했듯이, 근대적인 법체계를 정비한 메이지 국가에서 여성의 '성'은 전적으로 봉쇄된 존재였다.<sup>2)</sup> 첫째로 가(家)제도=호주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해 주고, 아내의 무능력을 제도로 규정한 메이지 민법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과의 동거의무가 있고, 아내가 별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혼사유에 대해서도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을 때'에는 곧장 이혼당하는 데 비해서, 남편은 '간음죄로 인해 형에 처해졌을 때'에 한해서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혼 상선이 크게 제한되었다. 둘째로 그러한 '간음(간통)죄'를 규정한 메이지 형법에 의하여 남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 여성에게 남편이 있어서 소송하는 경우뿐이며, 미혼 여성과의 관계는 자유로웠다. 이로부터 매춘 및 첩을 두는 일이 공인되었던 것이다. 또 형법의 낙태죄는 어떠한 이유라도 중절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여성에게 '낳는다, 낳지 않는다'는 선택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여지가 없었다. 셋째로 남성의 매춘행위를 공인하는 공창제는, 메이지 국가에 의해 '본인의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인신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창기(藝娼妓)의 '영업'을 시켜도 좋다는 제도이다. 이것은 흡사 걸보기로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농가의 딸들이 '성'의 상품화되는 일을 제도화했던 것이다. 넷째로 남성의 매춘을 공인하는 맞은편 쪽에 여성의 '처녀성' '정조'를 절대화하고, 여성이 '성'을 의식하는 것조차 '음란'이라 하여 '숨길' 것을 강요하는 '양처현모' 교육에 의해, 여성의 '성' 인식을 타부화한 것도 국가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지적할 것까지도 없지만, '성의 자기결정'을 둘러싼 또 하나의 측면으로서 일반 민중의 '사적' 생활

2) 총합여성사연구회 편, 『일본여성의 역사-성, 사랑, 가족』(角川서점, 1992) 등 참조.

영역의 '성'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일견 지금 서술한 바와 같은 국가규범과는 동떨어진 '자유로운' 성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요코야마 겐노스케(横山源之助)의 『일본의 하층사회(日本之下層社會)』(1898)나 호소이 와키조(細井和喜藏)의 『여공애사』(1925) 등은 도시의 '하층생활자'나 방직, 제사공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성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종종 "이백에 가까운 여공은 남자 직공의 손을 잡고 밤새 길가에서 노닐거나 근방의 젊은 패거리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한다."<sup>3)</sup>고 씌어 있는 것처럼, 여성 쪽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또 민속학의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청년 숙소(若者宿)'나 '치녀 숙소(娘宿)', 혹은 '요바이'(옛날에 남자가 밤에 연인의 침소에 가만히 잠입하던 일-역주)나 '처자 훔치기'의 관습 등은 메이지 이후에도 꽤 오래 계속되어, 국가나 가부장제의 권력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성 교섭'의 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성 교섭' 혹은 여성의 '능동적인 성'이 곧바로 '성의 자기결정'이며 '성적인 권리'를 의미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방직, 제사공장 등에서는 종종 여공을 제어하는 술책으로 남자직공(감독)에 의한 강간이 행해지거나, 또 농촌에서 소녀들을 여공으로 모으러 다니는 모집인 자신이 '짐승 같은 희생'을 강요한다는 기술도 있고,<sup>4)</sup> 공장내에서 임신한 여공의 자살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sup>5)</sup> '청년 숙소'나 '요바이'는 확실히 공창제나 가족제도에 지배되지 않고 금전에 의한 성의 매매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관계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이 촌락공동체의 청년=남성이 집단으로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결혼통제'의 장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원래 청년계(若者組 : 중세 이래 일본 향촌에서 부락별로 조직된 청년의 집단. 혼인, 제례의 봉사나 야

3) 요코야마 겐노스케(横山源之助), 『일본의 하층사회』, 岩波문고판.

4) 호소이 와키조(細井和喜藏), 『여공애사』, 岩波문고판.

5) 야마모토 시게미(山本茂實), 『아, 노무기 언덕(野麦峠)』, 角川문고판.

경, 소방, 재해 구호, 공공 시설의 수리 등을 맡았으며 집회소인 청년 숙소에서 친목을 도모함-역자주) 안에 마을 처녀들은 자기들 것이라는 의식<sup>6)</sup> 혹은 “마을 처녀에 대해 청년 집단이 ‘공유’하는 것처럼 보”<sup>7)</sup>기는 상황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마을 처녀는 절대적으로 청년의 지배 하”<sup>8)</sup>였다고 하는 기술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근대일본의 여성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으로서 자기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의 길을 추구한 ‘직업부인’들조차 독신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타락’한 존재로 간주되어, “매춘부를 사면 적어도 오엔 내지 십엔이 드는 것을…… 손이 쉽게 닿는 곳에서 작업대를 나란히 하고 일하는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는<sup>9)</sup>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폐쇄’ 상황을 여성들은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돌파하고자 했을까. 여기에서는 1911년에 창간된 잡지 『청탑』의 소설을 주로 소재로 삼아 ‘성의 자기결정’이 어떻게 추구되었는가를 더듬어보고자 한다. 『청탑』과 ‘성’에 관련된 테마로서는 이미 히리츠카 라이초우(平塚らいてう)를 비롯한 『청탑』 사원들의 연애나 결혼(이혼)의 경위, 혹은 ‘정조논쟁’ ‘낙태논쟁’ ‘폐창(廢娼)논쟁’이라 불리는 논쟁의 내용 등이 웬만큼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sup>10)</sup> 여기에서는 비교적 잘 읽혀지지 않았던 소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소설이라는 픽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까닭에 당시 여성들의 ‘성의 자기결정’에 대한 모색이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6) 와카모리 타로오(和歌森太郎), 『역사연구와 민족학』(홍문당, 1969).

7) 가와시마 다케노리(川島武宜), 『이데올로기서로의 가족제도』(岩波서점, 1957).

8) 아리가 기사에몬(有賀喜左衛門), 『일본혼인사론』, 有賀喜左衛門 저작집 6권(미래사, 1968).

9) 「마루빌딩(丸ビル) 문체비판회」, 『부인과 노동』 1925년 1월호.

10) 오리이 미야코(折井美耶子) 편, 『자료 : 성과 사랑을 둘러싼 논쟁』(도메스출판, 1991) 참조.

이제까지 나 자신도 그러했지만, 발매금지가 된 아라키 이쿠코(荒木郁子)나 하라다(야스다) 사츠키(原田(安田)阜月)의 작품을 제외하면, 『청탑』 지상의 평론이나 감상이 주목받은 만큼 소설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반성 때문이다. 특히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나 타무라 도시코(田村俊子), 노가미 야에코(野上彌生子), 오카모토 가노코(岡本かの子)처럼 작가로서 두드러진 여성의 작품이 아니라 무명인 채 혹은 평가받지 못한 채 묻혀져 버린 청탑사 사원들의 작품이 끊임없이 모색했던 ‘성의 자기결정’이라는 테마를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살펴보고 싶다.

### 3. 전기 『청탑』과 ‘-되는 성’의 갈등

도대체 ‘여류문예잡지’로서 『청탑』의 출발이 어떠한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썼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다.<sup>11)</sup> 단지 『청탑』을 여류문예잡지로서만 보지 않는다는 것과 발표된 문예작품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며, 오히려 이제까지 『청탑』을 문예지로 보면서 거꾸로 대부분의 문예작품을 소위 ‘문학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점이야말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간 직후인 1911년부터 1913년 초까지 『청탑』에 발표된 소설을 다시 읽으면, 거기에는 몇 개의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등장하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대해서 얼마나 수동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의식화해 놓은 기술이다. 창간호에 등장하는 타무라 도시코(田村とし子)<sup>12)</sup>의 「생혈(生血)」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유우코(ゆう子)가

11) 줄고, 「『청탑』과 ‘사회’의 접점-라이초우와 나가에(長江)을 중심으로」, 야마나시(山梨) 현립(縣立)여자단기대학 紀要 24호(1991).

12) 『청탑』 사원의 여성의 성명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옛날의 성, 결혼한 후의 성 가운데 어느 쪽을 쓸까, 이름은 가나식어로 쓸까 ‘子’를 붙일까를 둘러싼 논의가 있다(호리바 키요코(堀場清子), 『청탑의 시대』). 여기에서는 원칙으로

자신을 '썩은 고기로 포장해 놓은 듯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자를 따라 걷는다는 스토리이다. 다음 1권 2호(1911년 10월)의 이와노 기요코(岩野濤子)<sup>13)</sup>의 「오타카(お高)」에서는, 소극장의 단장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오타카가 실은 남자에게 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 속았다. 분하다'라고 부르짖는다. 오지마(고데라) 기쿠코(尾島(小寺)菊子)<sup>14)</sup>의 「밤기차(夜汽車)」(1권 4호, 1911년 12월)는 야행열차에 탔던 여자가 옆자리의 남자가 밤새도록 기대거나 손을 잡거나 하여 잘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오카다 야치요(岡田八千代)<sup>15)</sup>의 「향기(かをり)」는 짝사랑하는 청년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은 마사코(政子)가 청년의 가족으로부터 가까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그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청년은 다른 여자와 결혼해 버린다는 소설이다. 오가사와라 사다코(小笠原貞)<sup>16)</sup>의 「어떤 밤(或る夜)」(2권 7호, 1912.7)과 「병아리(ひな鳥)」(3권 1호, 1913.1)의 공통된 키워드는 '안긴다' '손을 잡힌다'이다.

전기 『청탐』의 소설에 그려진 여성상은 모두 여성작가에 의해 씌여졌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바로 여성 스스로의 성을 자기의지에 의해 통제하면서 살아가기 곤란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호리바 기요코(堀場濤子)

---

서, 발표 즈음 본인이 사용한 것을 썼다. 따라서 동일인물이라도 표기가 다를 수 있다. 타무라 도시코(1884~1945) : 소설가, 배우. 결혼의 파경 후 캐나다로 연인과 탈출. 그곳에서 일본인 노농분농에 참여. 귀국 후 중국어 잡지 『女聲』 창간. (역자주-작가소개는 이하 동일)

- 13) (1882~1920?) 소설가. 정치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치안경찰법 조항의 개정운동에 참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남편에 대해 동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제가 됨. 강연 「사상상의 독립과 경제상의 독립」(1913년 청탐사 제1회 공개강연).
- 14) (1879~1956) 소설가. 소녀잡지에 소설을 발표하여 일가를 부양함. 고달팠던 소녀시대, 고향 등을 묘사한 작품이 많다.
- 15) (1883~1962) 소설가. 수필·희곡·평론 등을 망라한 집필. 신극운동에 적극 받아 아동극단 <아생좌(芽生座)> 창립(1922), 『여인예술』 창간(1923), <일본여류극작가회> 발족(1948).
- 16) (1887~1988) 소설가. 여자미술학교 중퇴. 와세다에서 하숙 개업. 결혼 후 자식 하나를 예술가로 기르는 일에 전념.



씨는 『청담』의 여성들에게 악의와 모독으로 쏘아붙였던 ‘새로운 여자’의 ‘어원’을 유럽의 동향에서 구하고, 그 의미가 ‘the conventional’(인습적인 것)을 거부하는 여성들이라고 파악하지만,<sup>17)</sup> 여성작가가 ‘-되는 성’으로서의 여성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한 상황을 conventional로 의식했다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그것은 소설 속에 표현되어 있다. 『생혈』의 유우코는 편으로 자기 손가락을 찌르고는 “박쥐가 …… 생혈을 빨고 있다”고 의식한다. 『오타카』의 오타카는 속아서 밤새 울며 지새우는데, 그것은 “열병처럼 몸 안이 달아올라서 머리맡의 램프불이 빙빙 돌” 정도로 격렬했다. 『밤기차』의 여자는 자기에게 손을 내민 남자가 하차할 때 미소를 보내는 데 대해서 “상대를 모욕하는 듯이 험상궂은 눈길”로 답한다. 『향기』의 마사코는 결혼해 버린 남자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마 누군가에게 저주받았겠지요”라는 말과 함께 듣는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내포한 ‘-되는 성’의 표현은 다른 한편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어 ‘봉쇄당한 성’에 대한 반란을 예감하게 하는 작품으로 이어져 간다. 아라키 이쿠코(荒木郁子)<sup>18)</sup>의 『미치코(道子)』(1권 3호, 1911. 11)는 ‘단지 불란서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프랑스인 남성의 집을 방문한 소녀가 “이성(異性)에게만 요구받는 어떤 것을 요구”받아서 소위 ‘허물어진 생활’에 떨어지지만, 마침내 처자가 있는 남성과 ‘매우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다. 남자에게 부양받지 않았던 미치코는 돈에 쪼들려서 예전의 프랑스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하고, 그의 집에서 엉망으로 취해서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날 아침 새 지폐를 띠 속에 끼워넣은 미치코는 거의 후련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담』 발기인의 한 사람인 모즈메 가즈코(物集和子)<sup>19)</sup>의 『하룻밤(一夜)』(1권 4호, 1911.12)은 자기를 버

17) 호리바 기요코, 전계서(岩波서점, 1988).

18) (1890~1943) 소설가. 여자미술학교 졸업. 소설 「편지」로 『청담』이 처음으로 발매 금지됨. 신부인협회에 참가. 일생 독신으로 가업을 계승함.

19) (1888~1979)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 문하생. 결혼의 기만을 꿰뚫어보고, 어머니, 자매 등 동성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니컬한 작품이 두드러짐.

리고 결혼한 남성이 불러내니까 “만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외출하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결국 여자는 남자에게 돈을 건네받고 그것으로 연을 끊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분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종이포장을 열고 ‘기모노를 한 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꿈꿨이셈을 한다. 마찬가지로 발기인의 한 사람인 키우치 조우코(木内錠子)<sup>20)</sup>는 「저녁 화장(夕化粧)」(1권 3호, 1911.11)에서 의지가 없는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례차례로 남자와 놀아나는 술집 안주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남자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지금 아름다운 자기에 매혹당해서……자기에 걸려들어 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그녀는 함부로 말해 버린다. 작자와 연관해서 보면 거의 비현실적인 이러한 ‘독부형(毒婦型)’ 여성을 묘사하는 것도 소위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창간 1주년이 지난 제2권 후반 이후가 되면, 그 ‘저항’은 좀 더 리얼한 묘사방식을 취한다. 아까 언급한 「어떤 밤」의 젊은 여성은 확실히 남자에게 안겨 입을 맞추고 ‘뛰어오를 정도로 놀’라지만, 그 직후 “지금까지 사물을 겁내던 듯한 연약한 마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재빨리 퍼져나는 반항심으로 변”한다. 그녀가 생각해낸 ‘복수’란 남자의 방안에 있는 예쁜 분재꽃을 소리도 없이 잘게 뜯어 버리는 일이었다. 가미지카 이치코(神近市子)<sup>21)</sup>의 「편지의 하나(手紙の一つ)」(2권 9호, 1912.9)에서는 “불의에 몸도 마음도 그 사람에게 맡겨 버리고 싶은 기분”이 되어 남자에게 몸을 던진 여자가 “한번 손에 넣은 ‘나’라는 것의 소유에 싫증이 나서” 폭군으로 행세하기 시작한 남자와 결별한다. 나중에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의 방자한 ‘자유연애’에 화가 나서 ‘히가케찻집사건(日陰茶屋事

20) (1887~1919) 소설가·비평가. 고다 로한의 문하생. 일본여자대학교 국문학부 졸업. 불어 학습, 문부성의 검정시험에 합격 후 불어를 가르치면서 여러 잡지에 글을 발표.

21) (1888~1981) 소설가·신문기자. 1916년 연인 오스기 사카에를 질러 중상을 입히고 징역 4년을 받음. 사회당 중의원 의원으로 여성해방운동, 인권옹호운동에 전력.

件)’에 이른 그녀의 변곡이 엿보인다. 아라키 이쿠코의 「죽기 전(死の前)」(2권 10호, 1912.10)의 주인공은 남자에게 “양식집에서 요리집, 요리집에서 요정의 순서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언제나 길들여진 작은 새처럼’ 붙어다니는 여자였는데, “어찌서 헤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라고 고민하며, 죽음을 앞에 둔 병상에서 거의 헛소리처럼 “자기의 몸은 전연 더럽혀지지 않았었다. 자기 혼자만의 몸이었다. 그것을, 그것을, 나는 도둑놈을 만났다. 내 마음을 훔친 사람이 있다. 내 몸도 훔쳤다. 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채 죽는 것은 싫다……. 나는 죽기 전에 그를 죽일 것이다. 빼앗기고 놓여나는 것은 싫다. 되찾아야만 한다”고 계속 중얼거린다. 그녀는 이전에 쓴 「편지(手紙)」(2권 4호, 1912.4)에서, 공공연히 ‘간통’을 테마로 하여 발매금지 처분을 받고 화제가 되었는데, 「편지」만을 두드러진 관능적 자기주장의 산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편지」를 포함하여 이들 작품군은 정말로 ‘the conventional’의 생활로부터의 자기회복-자기결정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 듯한 갈등의 메시지로서 읽을 수 있다.

#### 4. 후기 『청담』과 ‘-하는 성’의 모색

『청담』은 1913년 초두 이래 ‘새로운 여성’ 논쟁의 한가운데에 휩쓸려 들어가 「청담사 강연회」의 개최, 자타 공히 후원자로 여겼던 이쿠다 조우코(生田長江)와의 결별,<sup>22)</sup> 「청담사 개칙(概則)」 제1조의 ‘여류문학의 발달을 꾀한다’를 ‘여자의 각성을 촉구한다’로 변경하는 등, 커다란 전환을 경험한다. 그것은 또 『청담』의 사실상 주재자였던 히라츠카 라이초우(平塚らいてう)<sup>23)</sup>의 연애편람에 근거한 의식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었다.

22) 이 점에 대해서는 전계 즐고, 「『청담』과 ‘사회’의 접점」 참조.

23) (1886~1971) 사상가. 일본여자대 가정과 졸업.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 부인 참정권운동의 원조, 평화운동가 등으로 불림.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를 추구. 무

1914년부터 1915년에 걸쳐 한편으로는 라이초우의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국장격인 야스모치 요시(保持研)<sup>24)</sup>의 퇴사, 『청탑』의 경영난 같은 현실 속에서, 1915년에 라이초우에서 노에(野枝)<sup>25)</sup>로의 『청탑』 양도극이 일어난다.<sup>26)</sup> 이후 1916년 2월의 폐간까지 『청탑』의 지면에는 여자의 '성'에 관련된 테마가 속속 등장한다. 그것은 여성의 능동적인 '성'에 대한 욕구, 전통적 '정조'관 비판, '생식(낳는 일)'의 자기결정 '자존심' '질투' 나아가 '동성애' 등등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 가와다 요시(川田よし)의 「붉은 나무의 싹(紅き木の芽)」(4권 4호, 1914.4)은, '노라(ノラ)', '바이바이(ヴィヴィ)'(둘 다 『청탑』에서 화제가 되었던 유럽 연극의 여주인공)에게 관심을 지닌 요시에(芳江)가 그러한 자신에게 호의적인 청년과 입을 맞추고는 처음으로 육체에 성에 눈뜬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예전에 좋아하지 않는 남자에게 손을 잡혔을 때 '증오가 일시에 울컥 솟아올라' '남성에 대한 장벽'을 죽 갖고 있었던 그녀는 '처음으로 남자의 냄새'를 알게 되고, 육체의 '미묘한 전율'을 느낀다.

야스다 사츠키(安田皐月)<sup>27)</sup>의 「사도의 노래(佐渡節)」(4권 4호, 1914.4)(사도는 옛 지방의 이름. 지금의 新瀉縣(니가타겐) 관할의 섬-역자주)는 더욱 과격한 소설이다. 치요에(千代枝)는 "지금 무언가 끊임없이 추구하

---

정부주의에 공명한 것을 비롯하여 안보소약 반내, 베트남전쟁 반내 등으로 좌경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4) (1885~1947) 결핵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일본여자대 문학부 졸업. 잡지 제작의 실무에서 실력을 발휘했으나, 잡지 부진과 청탑과의 관계를 둘러싼 압박으로 인해 퇴사.

25) (1895~1923) 소설가. 17세에 청탑과 관계를 맺기 시작. 라이초우에 이어 『청탑』의 책임자가 되었으나 오스기 사카에의 영향으로 급속히 사회주의로 기울었다. 28세 때 오스기 사카에와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함.

26) 이것이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노에가 라이초우에게 행한 '약탈'이라는 것이 사견이다(전게서 참조).

27) (1887~1933) 소설가. 라이초우와 함께 여성 피임과 중절의 자유를 주장. 차남이 장애자가 된 후 이혼. 결핵의 재발과 생활고 가운데 자살.

고 있지만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슬프다든가 쓸쓸하다든가 그렇게 분명히 잘라말할 수 없는 애달픔”에 뒤척거리는 밤을 지내며, 소식을 보내지 않는 남자에게 “반쯤 죽은 지렁이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라는 편지를 쓴다. 결국 남자는 도망치듯이 고향에 돌아가 결혼해 버리지만, 혼자가 된 치요에는 “내던지면 자기 뜻대로 되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 소용없게 되었다. 내던진 모양이 전연 만족스럽지 않다”고 웃어 보인다. 그후 1년 남짓 지나, 결혼해서 하라타(原田) 씨가 된 사츠키가 쓴 것이 ‘풍속괴란(風俗壞亂)’의 이유로 발매금지가 된 「옥중의 여자로부터 남자에게(獄中の女より男に)」(5권 6호, 1915.6)이었다. 이것은 낙태 시비를 둘러싼 논쟁의 계기가 되어 유명하지만, 여기에서 태아를 ‘모체의 작은 부속물’에 불과하다고 하여 중절을 용인한 점보다도, “나는 나의 책임관념을 완수하기 위해 이렇게 할 도리밖에 없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고민할 때 인류니 타인이니 하며 생각을 산만하게 넓히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는 철저한 자기결정의 주장을 토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이리하여 『청담』은 좋든싫든 ‘성의 자기결정’을 문자 그대로 쏠신체적인 섹슈얼리티의 문제로서 묻는 의논으로 깊이 파고들어간다. 아까 ‘낙태논쟁’에서도 라이초우는 스스로의 임신체험에 기초하여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성으로서의 생활 사이의 투쟁에 대하여’(5권 8호, 1915.8)에서, ‘개인’과 ‘성’(라이초우는 여기에서 주로 모성=motherhood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의 모순이 지니는 ‘참담함’을 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보다 1년이나 전인 1914년 6월, 즉 결혼하고 반년 후에 그녀가 “성적인 문제는 인생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고, 그럼에도 사회가 여성의 ‘성’ 문제를 ‘진지하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희롱의 어조로 포장하려’<sup>28)</sup> 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그것은 그 직후 야스코우치(安河内) 경보(警保)국장이

28) 히라츠카 라이초우, 「최근의 감상」, 『청담』 4권 9호(1914.10).

‘칭답사라는 무리’는 ‘색욕의 아귀’라고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고, 라이 초우 등이 항의를 하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는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다.<sup>29)</sup> 그리고 그 야스코우치 발언을 전후하여 우에노 요오(上野葉)<sup>30)</sup>가 소설은 아니지만 덴마크의 여성작가에 대한 소설비평의 형태로, 「‘성’에 대해서-이혼한 마흔 여자의 대담한 고백을 읽고」(4권 8호, 1914.8)를 쓰고, “나는 일찍이…… 연애와 성욕은 여성에게 독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속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썼다. 그것은 단적으로 「화류계의 여자(花柳界の女)」에 나타난다고 우에노는 말하지만, 동시에 ‘남은 결혼법을 따르고 있는 남녀의 무리’도 또한 ‘단순한 육체의 결합으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이야기한다. 그녀의 소설 「마누라 초기(女房始め)」(5권 1호, 1915.1)에서는 남편이 ‘유곽(色街)’에 나갔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처의 입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산다는 것이 혼자만의 성욕의 요구에서 비롯된다면 연애라는 것과 성욕은 고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될 터이다.”라고 묻고, 연애와 성욕을 “남자가 구별한다면 여자에게도 따로따로일테지?” 하며 자문자답을 한다. 우에노 요오가 앞의 소설비평 속에서 일관하여 “철두철미 좋아한다는 대상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오히려 독신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가슴 깊은 속에 묻어” 두어야 하며, ‘영혼의 동경’ 없이 ‘육체의 해방’은 없다는 입장에서 반어적으로 남자의 ‘성’에 대한 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 ‘영과 육’의 문제를 스스로 실천한 것이 이와노(엔토오) 키요(岩野(遠藤)清)로서, 구혼한 이와노 호우메이(岩野泡鳴)에게 참된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거해도 육체의 교섭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영혼이 이길까 육체가 이길까’라는 식으로 저널리스트하게 다루어졌던 것은 1909년의 일이었다.<sup>31)</sup>

29) 이와노 키요(岩野清), 「야스코우치(安河内) 경보(警保)국장에 의견에 대하여」, 『칭답』 4권 9호(1914.10).

30) (1886~1928) 소설가·평론가. 여고 교사로서 문부성의 여자교육방침을 통렬히 비판. 병으로 사망.

하지만 '사랑'과 '성'의 분리는 남성에게는 당연하고 여성에게는 '죄'라는 현실에 대해 여성이 이의를 신청할 때, 그것은 국가에 의한 성의 이중규범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리적 차이, 즉 남성은 능동적인 성, 여성은 수동적인 성이므로 자연스럽다는 '과학적 상식'과의 싸움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나다(야스다) 사츠키는 "완전한 성장을 마친 남녀에게 생식기능이 성욕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일은 완전한 소화기가 식욕을 느껴 온전한 사지가 운동을 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일 뿐"이라고 했지만, 역시 여성 자신은 생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전부 수동적'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구나 그녀가 '여자의 연약한 체력'은 "처음부터 연약했는지 아니면 분만, 육아 때문에 언젠가 체력의 소모를 가져 오고 만 것인지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여성의 선천적 열성론을 의문시하고 있음은 주목에 값한다.<sup>32)</sup> 그러나 이 점은 라이초우 역시 남자와 여자가 연애의 진행이 다르다는 엘렌 케이의 문장 "여자에게 연애는 통상 영혼(靈性)에서 관능으로 나아간다…… 남자는 통상 관능에서 영혼으로 나아간다……"를 끌어와, '이 말을 마음속으로 긍정'하고 있었다.<sup>33)</sup> '여성에게는 성욕이 없다'는 것이 '통설'인 시대였다. 이 터부에도 도전한 것이 니시자키(이쿠다) 하나요(西崎(生田)花世)<sup>34)</sup>였다.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잃지나 앓을까 하여 고용주에게 '정조'를 빼앗긴 체험을 고백하여<sup>35)</sup> '정조논쟁'<sup>36)</sup>의 발단을 제공했는데, 생활을 위해 정조를

31) 이와노 키요(岩野清), 「大久保 일기」, 『사랑의 투쟁(愛の争闘)』(1915) 수록(총서, 『청담의 여자들』 제4권, 不二출판, 1985에 수록).

32) 하라타 사츠키, 「수성(獸性)과 인간성에 대하여」, 『청담』 5권 7호(1915.7).

33) 이 부분은 『청담』 4권 5호(1914.5)에 수록되어 있다.

34) (1888~1970) 자신의 성희롱 체험을 통해 일본의 가족제도와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한 것이 '정조논쟁'의 발단이 되며, 이것을 계기로 시인 이쿠다 순게츠와 결혼함. 남편의 외도와 생활난으로 자살하려 함. 『여인예술』에 참가. 전후 『겐지이야기(源氏物語)』 강좌를 열고 제자를 기름.

35) 이쿠다 하나요, 「먹는 것과 정조(食べることと貞操と)」, 『반향』 1914년 9월호(전계 『자료 : 성과 사랑을 둘러싼 논쟁』에 수록).

36) 이 논쟁을 '정조'라는 용어 자체의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하여 '저녀논쟁'이라고

버려도 좋은가 하는 비난을 받자 하나요는 궁지에 몰렸던 사정을 호소한다. 그 하나가 이 사건은 단순한 정조문제가 아니라 여자에게 경제적 자립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제도의 책임이라는 시점인데,<sup>37)</sup> 여기에서는 궁지에 몰린 또 하나의 사정으로서 “전연 남자에게 응한 적이 없는 16, 17세의 신체가 아니라,” ‘성숙한’ 신체를 지닌 24세의 여성인 자신이 생활난을 위해 노동하고 ‘지쳐 있었다는 것.’ 그러한 “나의 신체가 이성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언급한 점에 유의하고 싶다. 하나요는 “만약 보통의 행복한 여자라면, 생활난에 끄떡없는 여자라면, 아이들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녀가 피로움에 혈떡이며 사는 피로의 중심은 바로 성의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sup>38)</sup>라고 써서 그 때문에 더욱 비난을 받았는데, 사면초가 속에서 정색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발언에서, 실은 여자의 ‘성’에 대한 터부를 돌파하고자 하는 ‘발버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결혼을 ‘여자의 행복’이라 생각했던 하나요는 이 논쟁을 통해 시인 이쿠다 순게츠(生田春月)에게 구혼을 받고 환희에 차 결혼선언을 한다. 그러나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순게츠의 잇달은 ‘바람기’를 참지 못했던 그녀가 우에노(上野) 동물원을 헤매고 다닌 후 교미를 막 끝낸 자웅의 사자를 쏘아보는 문장은, 여자의 섹슈얼리티의 상태를 문제삼는 장렬함조차 있다고 하겠다.<sup>39)</sup>

이러한 시점과 연관된 것으로 『청담』이 오구라 세이자부로(小倉清三郎)의 「성적 생활과 부인문제」(4권 12호, 1914.12)를 실었던 일도 중요하

---

부르는 견해(무타 가즈에(牟田和恵) 등)와, 여자의 신체를 주박하는 이 말을 피해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조논쟁’이라 부르는 견해(아라이 도미코(荒井とみ子) 등)가 있다. 필자가 ‘정조논쟁’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암과강좌 『일본통사』 18, 「근대 3」의 줄고, 「주부와 직업부인」(1992) 참조.

37) 「청담과 ‘사회’의 접점」 참조.

38) 이쿠다 하나요, 「다시 동정(童貞)의 가치에 대하여—야스다 사츠키 씨에게」, 『반향』, 1914년 2월호(전개, 『자료 : 성과 사랑을 둘러싼 논쟁』에 수록).

39) 이쿠다 하나요, 「사자는 저항하기 어렵다」, 소설집 『타는 머리(燃ゆる頭)』, 1929년 소수(총서 『청담의 여자들』 제4권, 不二출판, 1986에 수록).



다. 여기에서 그는 라이초우도 긍정적인 엘렌 케이의 언설을 비판하고, 연애에서 남자의 성적 능동성과 여자의 수동성의 차이는 결코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성적 접촉(학습도 포함한)의 경험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여자에게 성욕은 없다’는 관념이야말로 여성의 신체를 주박하는 주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40)</sup>

여성 신체의 해방에 대한 욕구는 동시에 ‘지배당하는 성’인 이성애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청담』 창간 직후의 라이초우가 소년 같은 연하의 사원 오다케 베니요시 쿠후키치(尾竹一枝)(紅吉)<sup>41)</sup> 사이에 만들어낸 관계는, 확실히 ‘동성애’의 세계였다고 여겨지지만, 라이초우 자신은 자서전 속에서 그런 식으로는 한마디도 해놓지 않았다.<sup>42)</sup> 그러나 쿠후키치를 뿌리치고 오구무라 히로시(奥村博(史))와 결혼을 실현시키기는 했지만, 그 후 곧 그녀 자신의 발의에 의해 하베록 엘리스의 「여성간의 동성연애」를 『청담』에 실고, 그 전문(前文)에서 스스로 “나와 가까운 과거에 만났던 한부인-거의 선천적인 성적 전도자라고 여겨지는 한 부인에 의해 나는 이 문제에 특별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의 사랑의 대상으로 대체로 1년을 지냈습니다.”라고 쓴 것은, 이 사이의 경과를 보여주는 증언이라 할 것이다.<sup>43)</sup> 엘리스는 글 속에서 여성의 동성애적 지향에 대하여, “남자의 독립과 인습도덕, 비유하자면 여자는 집안의 음침한 공간에서 탄식하면서 결코 오지 않을 남자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낡은 가르침에서 혐오를 배웠던 여자는 어디까지나 이 독립을 발전시켜, 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찾고자 하는 곳까지 도달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40) 오다 료(小田亮), 『성』(삼성당(三省堂), 1996) 참조.

41) (1893~1966) 『번홍화(番紅花)』 창간(1914). 『여인예술』에 참가. 청년공산동맹원으로 검거. 전후 여성운동에 참여.

42) 히라즈카 라이초우의 자서전, 『원시(元始), 여성은 태양이었다』 2권(대월(大月)서점, 1971) 참조.

43) 『청담』 4권 4호(1914.4).

그런데 『청담』의 소설은 동성애를 어떻게 그려냈을까. 스가와라 하츠(菅原初)의 『10일의 친구(旬日の友)』(5권 3호, 1915.3)는 친구의 고백이라는 형식을 취한 동성애 체험의 소설이다. “검은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묶은” 남성적인 여성 K에게 “발버둥칠 수 있는 한 발버둥쳐라, 번민할 수 있는 한, 번민할 수 있는 한” 하면서 부둥켜 안으며, “숨쉬고 싶어” “숨쉬고 싶지?”라고 대화하면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이대로 있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는, “심각한가, 유희인가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진실’이라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같은 호의 가와다 요시에 의한 『여자친구들(女友達)』은 이성적 연애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미츠코(光子)와 그것을 지켜보던 스미코(澄子)의 ‘우정’이 테마인데, 이 미츠코는 한편으로 스미코를 방문한 타미코라는 소녀를 거의 질투에 가까운 감정으로 ‘독점하고자’ 하고, 타미코에게 거절당하자 “스미코 씨에게는 타미코 씨가 있으면 된다. 나 따위는 벌써 생각도 해주지 않아 …… 나는 정말 혼자 떨어져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결국 미츠코는 스미코를 찾아와 “연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스미코의 손을 꼭 잡고, 얼굴을 기대”는 것이다.

여성의 동성애는 오히려 『청담』 이후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sup>44)</sup> 이러한 점은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오히려 지적해 두고 싶은 점은 판도라의 상자를 뒤집어 엮은 듯한 후기 『청담』의 지면에 떠올라온 커다란 소용놀이의 하나가, 이제까지 너부시뇌여 온 여성의 ‘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라이초우나 노에라는 저명인, 『편지』나 『옥중의 여자에게서 남자에게』라는 유명작품뿐 아니라 문학사상으로도 여성사상으로도 파문혀버린 여성들이 아마도 스스로의 통절한 실감을 토대로 이야기했을 ‘성의 자기결정’에 대한 모색을 읽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44) 이 점에 대해서는 요시가와 도요코(吉川豊子), 『“청담”에서 ‘태양소설’ 작가로의 길-요시아 노부코(吉屋信子), ‘지붕 속의 두 처녀’』(『페미니즘 비평』의 초대), 학예서림(學藝書林), 1995년 소수에서 시사를 받았다.

## 5. 맺는말

전기 『청담』부터 후기 『청담』으로의 변용은 그대로 근대일본의 역사에서 ‘메이지 절대주의’로부터 ‘다이쇼 데모크라시’로의 정치적 전환을 예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자칫하면 무시되거나, 평가되는 경우라도 ‘관능적’ ‘자유분방한 성’이라는 식으로 자리매김되는 쪽이 많았던 ‘성’을 둘러싼 표현은 『청담』 창간 85년째인 오늘날 새삼스럽게 국제사회의 모습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성적인 권리’의 문제로서 다시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사회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비록 여자와 교생 가운데 ‘결혼, 혼약까지는 성교 불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절반 이하(10퍼센트 대)로 감소하는 등(도쿄도 유치원, 소·중·고등학교 성교육연구조사, 『여성의 태이터 북』 제2판, 有斐閣, 所收), ‘성’에 대한 사고방식은 자유화되어 온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태는 어떤가 하면, 모두(昌頭)에 언급했던 것 같은 상황이 있고, 오히려 여성들은 정말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자유로운 성’이라는 이름하에 소녀매춘이나 외국인여성매춘 등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여성 자신이 스스로의 성의 존엄을 자각하고, 이러한 인습을 타파하는 싸움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담』은 선구적으로 그 무대를 제공했고, 이토오 노에에 의해 1916년 2월 방기되었다. 그 최중호에 혼조 가요우(本壓夏葉)가 쓴 감상 「살아가는 길(生き路)」은 현대의 우리들에 대한 통절한 메시지는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는 것도 아니다. 내게는 세계의 누구도 대신하기 어려운, 왕도 대신하기 어려운 나 자신이라는 단지 하나의 삶이 부여되어 있다…… 이리하여 나는 이미 누구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무엇에도 잠기거나(浸され) 하지 않는다…….”<sup>45)</sup>

---

45) 『청담』 6권 2호(1916.2).

